이베로아메리카 제3집(2001년)

상황보어와 강조재귀대명사의 유사성 고찰

박 숙 희*

Ⅰ. 들어가는 말

스페인어에서 말하는 상황보어(complemento circunstancial o aditamento)는 동사 및 술부를 수식하는 보어의 일종으로 동사의 보어에 해당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부사(adverbio)는 동사의 수식어로서, 상황보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1]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보어의 기능을 중심과제로 삼되,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둘 부분은 상황보어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나 상황보어의 종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몇몇 통사적인 특징과 의미론적 내용이 될 것이며, 또 이것이 동사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상황보어는 그 통사적 특징으로

* 한국외대 서어서문학과 강사

1) José-Alvaro Porto Dapena, *El complemento circunstancial*, Arco/Libros, Madrid, 1993, pp. 13-14. 그는 상황보어와 부사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상황보어는 하나의 기능인데 반해, 부사는 부사절이나 명사구(sintagma nominal) 혹은 전치사구(sintagma preposicional)과 마찬가지로 상황보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에 불과하므로, 부사가 항상 상황보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그는 또 기능과 영역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 부사와 상황보어를 구분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no hay que confundir las categorías con las funciones: el adverbio es una categoría que, entre otras, desempeña la función de complemento circunstancial: pero, a su vez, esta puede ser desempeñada a veces por elemento no adverbiales(sintagmas nominales, sintagmas preposicionales y las oraciones subordinadas adverbiales, mejor llamadas, de acuerdo con lo dicho, circunstanciales)."

볼 때, 구문에서 술부를 수식하는 비중이 직접보어(complemento directo o implemento)나 간접보어(complemento indirecto o complemento)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구문에서 생략된다해도 문장의 문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런 통사적인 사실은 강조대명사구문에 나타나는 대명사가 구문에서 문법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고유의 상황보어의 통사적 특징과 비교하여 강조대명사의 의미통사적인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기능문법의 기본틀 안에서 강조대명사의 기능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기본 시각은 의미론과 통사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조재귀대명사에 대한 기능 부여를 돕기 위해 1차적으로 의미론적인 시각에서 강조대명사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2차적 과정에서는 강조대명사에 대한 통사론적인 독립성과 그 기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할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의미통사론적 유사성을 찾는 작업은 지금껏 통사적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던 강조대명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분석이 될 것이다.

Ⅱ. 상황보어의 개념 및 특징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다시피, 상황보어는 동사행위를 수식하고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사의 보어(complemento del verbo)[2]에 해당한다.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상황보어의 개념은 말 그대로 동사의 행위가

2) 동사의 보어, 즉 complemento del verbo는 술부의 핵인 동사에 대하여 보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complemento directo, indirecto, circunstancial, agente, atributo, predicativo, de regimen이 이에 해당한다. Cfr., Ramón Cerdà Massó,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Anaya, Madrid, 1986, p.54.

전개되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동사행위에 대한 장소, 방법, 시간, 수단, 원인, 도구 등을 표현[3]하는 보어다. 예를 들어,

> *Desde mi casa* veo la torre de la iglesia.
> Cumpliré *de buena gana* el cargo de usted.
> *En aquellos años* no se habían inventado el ferrocarril.
> Escribiré *con la pluma nueva.*[4]

에서, *desde mi casa, de buena gana, en aquellos años, con la pluma nueva*는 각각 장소, 방법, 시간, 도구를 나타내는 상황보어다. 이런 분류 방법은 상황보어가 각 구문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의미론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위의 예문에 표현되는 상황보어들은 공통적으로 그 형태에 있어서 전치사가 앞에 수반되는 전치사구(sintagma preposicional)의 형식을 빌렸으나, 이 외에도 상황보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부사(adverbio)나 명사구(sintagma nominal), 비인칭 동사형태(formas no personales del verbo), 종속부사절 등 형식면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띈다. 앞서 말한 장소, 시간, 방법 등의 내용으로 분류한 것이 의미상의 분류라면, 부사를 비롯해 명사구, 전치사구, 비인칭동사형태, 종속부사절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태상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상 분류에 근거한 영역별 다양성은 상황보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단순히 부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다.

상황보어의 분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므로, 이제 상황보어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상황보어가 다른 동사보어와 달리 구문상에서 갖는 특징들을 살

---

3) Samuel Gili Gaya,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ograf., Barcelona, 1973, §53: "Complementos circunstanciales son los que espresan el lugar, modo, tiempo, medio, causa o instrumento de la acción verbal." Cfr., José-Alvaro Porto Dapena, op. cit., pp. 20-46.

4) 예문 인용, Samuel Gili Gaya, *op. cit.*, §54.

펴봄으로써, 강조대명사와의 유사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상황보어가 쓰인 예를 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예문:

1) Carlos ha venido *este fin de semana*
2) Carlos ha venido

에서, 1)의 상황보어인 este fin de semana는 2)의 경우에서처럼 생략 가능한 문법요소다. 다시 말해서, 상황보어는 의미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선택적이어서 생략 시에도 전혀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황보어의 생략은 문법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José-Alvaro Porto Dapena는 상황보어의 이런 특징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 "Ello determina que todo complemento circunstancial sea tanto sintáctica como semánticamente opcional, de manera que su adición o supresión no afecta para nada a la estructura ni a la viabilidad de la oración."[5]

그의 말대로, 상황보어의 존재는 의미적으로, 통사적으로 "선택적"이며, 그것의 생략은 문법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보어의 생략 가능성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의 하나로, Jose-Alvaro Porto Dapena는 상황보어와 함께 동사보어에 속하는 보충보어(complemento de régimen o suplemento)[6]를 비교대상으로 삼

---

5) José-Alvaro Porto Dapena, *op. cit.*, p. 13.

6) Ramón Cerdà Massó, op. cit.: "tipo de complemento del verbo introducido poruna preposición y que se caracteriza por ser permutable por la misma preposición y un pronombre tónico; *Nunca se acuerda* ***del día de su cumpleaños***."

는다. 그 이유는 전치사구의 형태를 취하는 보충보어가 역시 전치사구 형태인 상황보어와 그 판별이 어려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즉, 외형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양자를 각각의 문장에서 생략을 시도해봄으로써, 보충보어와 달리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그가 제시한 두 예문:

1) Los niños juegan *en el patio*
2) Los niños se encuentran *en el patio*[7]

에서, 1)과 2) 모두에서 쓰이는 *en el patio*는 의미상으로 "마당에(서)"로 해석되지만, 각각의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상이하다. 즉, 1)의 그것은 상황보어로, 2)의 그것은 보충보어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두 예문에서 각각 *en el patio*를 생략해보자:

3) Los niños juegan
4) *Los niños se encuentran[8]

보시다시피, 상황보어가 아닌 보충보어를 동사의 보어로 삼고 있는 4)의 경우에서는 보충보어의 생략은 비문법화의 결과를 낳게 된다. 4)의 경우, 전치사 en이 이끄는 전치사구는 동사인 encontrarse의 지배를 받는 보충보어이며, 따라서 생략 시에는 문법성을 잃거나 동사의 의미가 변한다[9].

용어 'suplemento'는 Emilio Alarcos Llorach이 'complemento de régimen'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한 다른 명칭일 뿐이다.

7) 예문인용, José-Alvaro Porto Dapena, *op. cit.*, 12.

8) 예문인용, *idem., ibid.*, p. 13.

9)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보어를 생략했을 때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José-Alvaro Porto Dapena는 다음 예문을 제시한다:

Joaquín cambio *de teléfono*
Joaquín cambio.

예문인용, *ibid., loc, cit.*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보어의 특징은 의미적, 통사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동사의 보어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들은 강조대명사의 특징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상황보어와의 유사성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 될 것이다.

Ⅲ. 강조대명사의 일반적인 고찰

3.1. 강조대명사의 특징 및 일반적인 견해

강조대명사를 상황보어와 비교하고 그 유사점을 발견하기 앞서, 본 장에서는 강조대명사의 용례와 그 정의를 알아보는 개괄적인 소개를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곁들일 것이다. 또한 강조대명사가 쓰이는 대명사구문을 함께 연구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상황보어와 비교를 위해 다른 재귀대명사와 달리 강조대명사만이 갖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특징은 강조대명사의 생략 가능성, 미약한 의미 추가, 자동사 및 타동사와 사용으로 세분된다.

우선 강조대명사구문의 정의를 내리면, 재귀대명사의 형태를 빌린 의사재귀대명사[10]인 /me, te, se, nos, os,/ 가 동사와 함께 모든 인칭과 수

10) 의사재귀대명사, 즉 pseudorreflejo 혹은 pseudo-reflexivo라는 명칭은 그것이 사용되는 구문에서 순수한 의미의 재귀성(reflexividad)을 띄지 않은 채, 형태만 재귀대명사를 취하여 동사와 함께 활용되는 경우를 일컫는다.이런 경향은 다분히 라틴문법정신의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Salvador Gutiérrez Ordóñez의 "Sobre los dativos superfluos", *Archivum(Univ. de Oviedo)*, vol 27-28, 1977-1978, 413-452에 잘 나타난다:
"La aplicación de la reflexividad se apoyaría en espíritu y letras de gramática latina"(p.417).
또한, Andrés Bello는 이것을 'cuasi-reflejas'라는 이름하에 재귀구문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구문을 하나로 묶고 있다. 참조, Andrés Bello,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Cabildo Insular de Tenerife, 1981, 758d) y 759, pp. 457 y ss.

에 일치하여 대명사활용(conjugación pronominal)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구문에서 쓰이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몇 가지 예문을 살펴보자.

1) *Me* voy
2) *Te* estás en casa
3) El *se* tomó el café
4) *Me* conozco bien sus argumentos

각각의 구문에서 보다시피, 재귀대명사의 형태를 빌린 대명사 *Me, Te, se, Me*는 특별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동사와 함께 대명사활용을 하고 있다. 즉, 단순한 강조의 역할일 뿐 대명사가 갖는 고유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위 구문들에서 대명사만을 생략하면 대명사구문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1a) Voy
2a) Estás en casa
3a) El tomó el café
4a) Conozco bien sus argumentos

위의 1a), 2a), 3a), 4a)의 예문은 1), 2), 3), 4)에 있던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런 대명사의 생략은 원래의 문장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문법성을 잃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변화가 있다면 문장의 의미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명사구문인 1), 2), 3), 4)와 대명사들이 생략된 1a), 2a), 3a), 4a)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의미상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미세한 의미의 첨가는 느낄 수 있다. 이 미약한 변화에 대해 Andrés Bello는 이렇게 말한다:

> "(...)hay varias especies de construcciones en que la reflexividad no pada de lo material de la forma, ni ofrece al espíritu más que una sombra débil y oscura."[11]

한편, Andrés Bello와 같이 강조대명사에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강조적 요소로만 보는 학자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우선 Lidia Contretas의 말을 인용해보도록 한다. 그에 의하면, 강조대명사는 각 개인의 기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문체적 개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 "(...) el *se* agrega solo la nota estilística del agrado o voluntariedad con que lo hace. Por esto, este *se* es para nosotros estilístico afectivo."[12]

Alarcos Llorach은 강조대명사를 부분적[13]이지만 간접목적보어로 해석하면서, 개인적이고 단순한 강조의 의미라고 강조대명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 "cumple aquí más que nada un papel afectivo, enfático, expresivo.(...)La modificación de contenido que se introduce se refleja puramente en el lexema del núcleo verbal. Su aparición no condiciona en nada la estructura del predicado"[14]

또한, F. Lázaro Carreter는 Lidia Contreras와 마찬가지로 강조대명사

---

11) Andrés Bello, *op. cit.*, p. 457; 그는 여기서 cuasi-reflejas라는 이름하에 재귀구문의 형태를 취하는 거의 모든 구문을 한 영역으로 묶고 있는데, 그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강조대명사구문 역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12) Lidia Contreras, "Significados y funciones del se", *ZFRP*, 82, 3/4, 1966, 298-307, p. 300.

13) Emilio Alarcos Llorach, "Valores de /se/", en *Archivum*, 18, 1968, 213-222, p.218: 그는 여기서 강조대명사를 대명사가 아닌 간접목적대명사로 해석한다.

14) *Loc. cit.*

의 사용을 개인의 기호로 설명하면서 주어의 행위 참여를 언급한다:

> "(...)denotan una especie de participación del sujeto en la acción, y aunque la frase posee sin ellos un significado pleno, su presencia rodea la comunicación de tonos afectivos."[15]

위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강조대명사는 문체적 개성에 근거하여 주어의 행위 참여와 주어의 의지 반영으로 보는 단순한 강조의 의미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강조대명사의 사용으로 인해 추가된 어떤 내용은 인정하되, 그것의 기능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명사구문에서 정확한 내용을 추출해 해석할 수는 없지만, Andrés Bello의 말처럼 대명사가 없는 구문에 비해 "희미한 음영"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강조대명사가 만들어내는 바로 그 미약한 변화는 그것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강조대명사구문에 미약한 의미의 추가가 있음을 뜻한다.

강조대명사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사와 타동사에서 모두 공히 쓰인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예문들처럼 자동사인 irse, estarse, 그리고 타동사인 tomarse, conocerse가 다 강조구문에서 사용된다. 물론 자동사나 타동사의 경우 모두 강조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16]이 존재한

---

15) F. Lázaro Carreter, "Problemas de terminología lingüística",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II*, Instituto de Cultura Hispánica, Madrid, 1964, 383-392, p. 390.

16) Cfr., J. A. de Molina Redondo, Usos de se, SGEL, Madrid, 1974, cap. 5, p.62; Antonio Narbona Jiménez, "Construcciones pronominales transitivas no reflexivas en español", *Alfinge 2*, 1984, 163-189, p.179: "(...)el objeto que delimita y concreta el concepto verbal no se introduzca como novedad (al margen de que lo sea o no en el plano de lo designado), sino como realidad ya dada y conocida."
즉, 타동사의 경우는 강조대명사가 쓰이는 구문의 주어와 직접목적보어가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우선 주어는 행위자로서 실존해야하며 한정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다. 특히, 타동사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적, 통사적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강조대명사의 쓰임이 문법적으로 인정된다. 이 조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강조대명사가 쓰이는 사실만을 특징으로 삼는다.

위의 사실은 자동사 혹은 타동사 한 유형에만 국한해서 강조대명사가 쓰이지 않고 자동사 건 타동사건 강조대명사를 필요로 할 때는 동사의 서술의 완전성 여부[17]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강조대명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모든 경우에 다 강제적이고 필수적[18]인 것은 아니다.

(Tú) te has leído ya la novela que te presté.

에서처럼, Tu는 행위를 하는 주어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목적보어 역시 한정성을 띄는데, 이는 이미 주어진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위의 예문에서 직접목적보어인 *la novela que te presté*는 막연한 상태의 사물이 아닌 구체화되고 한정된 것이다. 만약, 직접목적보어를 그냥 아무런 한정사 없이 novela라고 했을 경우를 보자:

*Tú te has leído ya novela

보시다시피, 이미 대명사구문은 agramatical이 되고 만다.

17) 동사의 서술은 predicación del verbo에 대한 번역으로 흔히 자동사는 더 이상 보충할 수 있는 동사의 보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redicación completa라고 하고, 타동사는 직접목적보어나 간접목적보어등 자동사에 비해 동사를 보충해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predicación incompleta라고 한다. 이에 관한 언급은 다음을 참조: la RAE,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1974, p. 370; Gili Gaya, op. cit., §49.

18) Cfr., Leonardo Gómez Terrego, *Teoría y práctica de la sintaxis,* Alhambra, Madrid, 1986, p.42: 그는 강조대명사구문과 강조대명사가 생략된 비대명사구문을 대립시켜 강조대명사가 꼭 사용되어야만 문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강조대명사가 구문에서 요구된다:

a. Bueno, me voy: hasta luego
b. *Bueno, voy; hasta luego
a. El niño se durmió en aquel momento
enseguida
a las tres
b. *El niño durmió en aquel momento
enseguida
a las tres

다시 말해서, 자동사건 타동사건 특정 동사에 강조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체적 특성과 기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강조대명사가 자주 쓰이는 동사유형과 그 구문의 용례를 소개한다.

Me voy
Se viene conmigo
Te estás en casa
Me tomé un café
Mis amigos *se salieron* del cine
Juan *se comió* el pastel
El *se bebió* una cerveza
Me ha leído la novela
Me ha visto la película
Andrés *se fuma* un paquete de tabaco diario.
¿Dónde *te has encontrado* esa cartera?
Me conozco bien sus argumentos.
El presidente *se miró* las instancias con lupa
¿*Te* quieres *ganar* mil duros en un rato?
Hay que *aprenderse* estas fórmulas
No *nos esperamos* esa respuesta
Os habéis recorrido todas las calles del centro sin necesidad.
Me he subido todos los paquetes yo solito.
Me barrí y fregué todo el local en dos horas.
F. Umbral *se escribe* los artículos de un tirón.
etc.[19]

3.2. 강조대명사의 의미상의 독립

앞장에서 살펴본 강조대명사구문과 강조대명사의 특징들이 일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좀더 한 걸음 발전된 단계가 될

19) 예문 인용: Antonio Narbona Jiménez, *Sintaxis española: nuevos y viejos enfoques*, Ariel, Barcelona, 1989, p. 66; idem., op. cit., "Construcciones pronominales", p. 165.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처럼, 단순한 동사의 형태소 혹은 어휘소로서의 해석에서 탈피하여 강조대명사의 내용상 독립을 시도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석은 특별한 통사적 기능이 없는 강조대명사는 그것이 품고있는 내용이 개인의 기호에 근거한 문체적이고 강조적인 것이라 단순한 동사적 요소, 즉 동사의 형태소나 어휘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강조대명사의 의미를 살펴볼 때도 여실히 드러난다.

Me voy
Me comí tres manzanas

위의 예문을 해석한다면, '나는 (지금 바로, 즉시, 내 의지로 혹은 여기서) 간다', '나는 사과 세 개를 (모두, 맛있게, 자발적으로) 먹었다' 가 된다. 강조대명사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괄호 속의 내용이 첨가된다. 즉, 'irse'는 'ir de un lugar', 'ir inmediatamente', 'ir voluntariamente', 'ir enseguida', etc., 그리고 'comerse'는 'comer todo', 'comer con mucho apetito', 'comer voluntariamente', etc.가 된다. 이렇게 대명사의 내용을 어휘적인 측면에서 동사 속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의미상은 물론 통사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이것이 강조대명사를 보는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 첨가된 내용들은 강조대명사가 사용되는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첨가된 내용은 강조대명사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IR	+	**SE**
'ir'	+	'de un lugar'
'ir'	+	'enseguida'
'ir'	+	'voluntariamente'.

etc.

COMER + **SE**
'comer' + 'todo'
'comer' + 'con mucho apetito'
'comer' + 'voluntariamente',
etc.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강조대명사의 용법이 주어의 의지나 상황을 표현하는 강조적 내용이므로 동사의 순수한 의미, 즉 'ir'와 'comer'에 의지나 강조를 뜻하는 단어들을 강조대명사의 내용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리고 위의 도식에서처럼 강조대명사의 내용인 'de un lugar', 'enseguida', 'inmediatamente', 'voluntariamente', 'todo', 'con mucho apetito'를 동사와 분리하여 독립된 개념의 의미로 가정한다면, 강조대명사는 상황보어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의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상의 독립을 바탕으로 강조대명사의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유사성

지금까지 상황보어의 특징과 강조대명사의 특징, 그리고 강조대명사의 의미상 독립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상황보어는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생략이 가능하고 동사의 보어로서 동사를 수식하고 동사의 서술성을 보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살펴본 강조대명사는 단순한 강조의 의미로서 동사의 어미처럼 동사 속에 소속되어 개인적인 기호나 문체적인 특성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강조대명사구문에서 추가된 내용을 동사와 별개의 내용으로 해석

해봄으로써 의미상의 독립을 시도해보았다. 이런 의미상의 독립은 본 장에서 다뤄질 상황보어와의 유사성을 밝히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양자의 공통점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생략의 가능성, 동사의 수식, 술부의 보충을 차례로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우선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공통점 중 하나인 생략의 가능성을 보자.

4.1. 생략의 가능성

상황보어는 앞에서 보았듯이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생략이 가능하며, 상황보어는 그 내용 면에서나 통사적인 면에서 선택적이다. 예를 들어,

Mañana nos vamos *a Caracas*

에서, 상황보어인 *a Caracas*를 생략해보자.

Mañana nos vamos

그 결과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장소상황보어가 생략되었을 뿐, 바뀐 문장이 문법성을 잃거나 문장구조가 변하지는 않는다. 즉, 상황보어의 생략으로 본래의 문장구조인 자동문(oración intransitiva)이 다른 구조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문에서 강조대명사로 쓰인 *nos*를 생략해보면 어떤 결과가 될지 생각해보자. 이미 동일한 문장에서 상황보어를 생략해보았다. 이제 강조대명사를 생략해 두 결과를 비교한다면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강조대명사인 *nos*를 생략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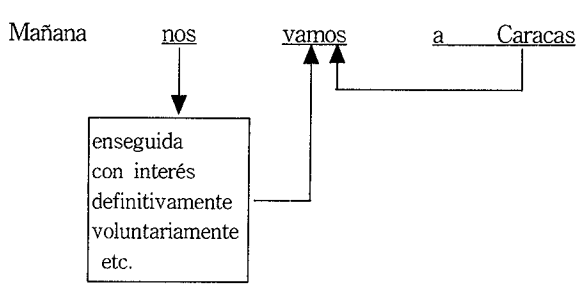
Mañana vamos a Caracas

보시다시피, 위의 문장은 여전히 자동문으로서 문장구조에 변화가 없을뿐더러, 비문법적인 요소가 없이 통사적으로 문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상황보어인 *a Caracas*를 생략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다. 다시 말해서, 강조대명사인 *nos*와 상황보어인 *a Caracas*는 다른 동사보어와 달리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략이 가능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2. 동사 수식 기능

여기서는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두 번째 유사성으로, 동사에 대한 수식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상황보어나 강조대명사의 생략은 동사인 *vamos*를 수식할 요소가 하나 감소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nos*나 *a Caracas*는 둘 다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선택적인 성격을 띄며, 문법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생략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양자가 모두 동사를 수식하는 상황보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동사에 대한 수식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nos*와 *a Caracas*의 의미적 해석을 보기로 하자. 앞에 인용된 예문과 함께 동사 수식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nos*의 내용이 될 수 있는 'enseguida', 'con interés', 'definitivamente', 'voluntariamente', 등은 상황보어인 *a Caracas*보다는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미 앞장에서 강조대명사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추출해서 해석을 했고, 또 그 내용들이 상황보어와 같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강조대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과정은 어색하지 않다.

이것으로 상황보어인 '카라카스에'와 강조대명사인 '즉시, 꼭, 혹은 원해서'의 내용은 의미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동사를 수식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4.3. 술부의 보충

술부의 보충(complementación del predicado)이란 불완전한 술부의 상태를 상황보어나 기타 동사의 보어를 사용함으로써 술부를 보충하고 수식하여 술부의 완전성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20] 이런 특성이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유사성의 하나로 다뤄지는 것은 양자가 모두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동사를 수식한다는 의미는 곧 술부를 보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보어나 강조대명사 모두 구문에서 술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된 예문 *Mañana nos vamos a Caracas*에서 보듯이, *nos*나 *a Caracas*가 술부를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보충해주고 있다. *vamos*만 술부에 존재한다면 술부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지만 강조대명사인

20) 술부의 완전성을 설명하기 앞서, 자동구문이 완전술부를 이루고 타동구문이 불완전술부를 형성하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즉, 자동구문은 자동사 자체가 다른 보어가 필요없이도 완전한 술부를 구성하므로 완전술부라고 하지만, 타동구문은 타동사만으로는 술부를 보충할 수 없으므로 직접목적보어나 간접목적보어 등을 요구하는 불완전술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la RAE, *op. cit.*, Esbozo, p. 370. S. Gili Gaya, *op. cit.*, §49.

*nos*와 장소상황보어인 *a Caracas*가 채워짐으로써 술부의 보충이 이뤄지는 셈이다.

굳이 이 경우가 아니라 해도, 타동구문이건 자동구문이건 상황보어나 강조대명사가 술부에 추가되면 술부의 보충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이것은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가 술부에서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양자의 유사성을 관찰을 마무리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상황보어라는 통사적 기능과 매우 유사한 강조대명사의 용례와 그 정의,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적, 통사적 기능을 찾고자 노력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단순한 동사의 어휘소 혹은 동사의 형태소에 지나지 않는 무기능의 강조대명사이지만, 강조대명사구문의 해석을 시도할 때 비대명사구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반드시 첨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의미상으로 독립시켜 재해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강조대명사는 형태만 재귀대명사의 모습을 취했을 뿐 어떤 대명사도 아닌, 오히려 상황보어와 유사한 특성을 갖춘 하나의 독립된 존재였다.

상황보어가 구문에서 생략되어도 문장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강조대명사 역시 생략되어도 문장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택적 요소이며 부분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경우[21]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강조

21) 강조대명사의 사용이 이미 규범화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Antonio Narbona Jiménez, op. cit., p. 188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con determinados verbos la construcción pronominal se ha afianzado hasta convertirse en norma en determinadas circunstancias(comí tres plátanos puede calificarse de inusual en cualquier registro), con otros es aparentemente libre la alternancia(me he visto cinco películas esta semana/he visto cinco películas esta semana), ...".

대명사의 생략 시 문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강조적 내용을 동사의 의미와 별도로 해석을 시도한 강조대명사의 내용은 상황보어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욱 술부를 풍부하게 보충하는 술부의 보충성과 연계된다. 즉, 술부의 불완전성이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를 술부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술부를 보충한다. 이것은 상황보어와 강조대명사의 유사성 중 마지막 특징으로 자리를 굳힌다.

본 연구에서 강조대명사를 상황보어 기능으로 보는 작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것의 또 다른 기능을 찾기 위한 길은 계속 활짝 열려있다. 부족한 연구임을 인정하면서 스페인어의 여러 대명사구문을 고찰하는데 있어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Bibliografía

Alarcos Llorach, E.: "Valores de se" en español, *Archivum* 18, 1968, 21-28_

_____ :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Gredos, Madrid, 1982[3]

Bello, Andrés: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cabildo Insular de Tenerife, 1981.

Cerdà Massó, Ramón y otros: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Anaya, Madrid, 1986.

Contreras, Lidia: "Significados y funciones del <<se>>",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82, 1966, 298-307.

Molina Redondo, J. A.: *Usos de se*, Cuestiones sintácticas y léxicas,

SGEL, Madrid, 1974.

Dubois, Jean & otros: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versión española de Iñés Ortega y Antonio Domínguez, Alianza, Madrid, 1983.

Fernández Fernández, Antonio: "Sobre la Diferenciación entre aditamentos y suplementos y sobre el complemento adverbial", *Revista de Filología*, Universidad de la Laguna, 10, 1991, 139-158.

Fernández Ramírez, Salvador: *Gramatica espanola 3.2. El pronombre y 4. El verbo y la oración*, Arco/Libros, Madrid, 1986.

Gili Gaya, Samuel: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1973.

Gómez Molina, C.: "Las Formas pronominales de tercera persona con verbos transitivos", *LEA*, III/1, 1981, 73-157

Gómez Torrego, Leonardo: *Teoría y práctica de la sintaxis*, Alhambra, Madrid, 1986

_____: *Valores gramaticales de "se"*, Arco/Libros, Madrid, 1992

Gutiérrez Ordóñez, Salvador: "Sobre los dativos *superfluos*", *Archivum*, 17-18, 1977-1978, 416-452

Lázaro Carreter, F.: "Problemas de terminología lingüística", *Presente y Futuro d el a Lengua Española*, Vol II, Ediciones Cultura Hispánica, Madrid, 1963, 383-392

Narbona Jiménez, Antonio: "Construcciones pronominales transitivas no reflexivas en español", *Alfinge*, 1984, N.2, 163-189.

_____: *Sintaxis española: nuevos y viejos enfoques*, Ariel, Barcelona, 1989..

Porto Dapena, José-Alvaro: *Los Pronombres*, Edi-6, Madrid, 1986

_____ : *Complemento argumentales del verbo:*

directo, indirecto, suplemento y agente, Arco/Libros, Madrid 1992

_____ : *El Complemento circunstancial*, Arco/Libros Madrid, 1993.

RE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1962_

____: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1974

<Resumen>

Las afinidades entre el pronombre enfático y el complemento circunstancial

El propósito de nuestro estudio consiste en buscar algunos caracteres comunes entre el complemento circunstancial y el pronombre enfático, y con ello podemos otorgar a éste un verdadero papel semántico-sintáctico.

El pronombre enfático, bien con intransitivos, bien con transitivos, cuya función no se ha admitido ni semántica ni sintácticamente y no se ha considerado nada más que como matices que tienen valores estilísticos y afectivos, se similaria a un complemento circunstancial en los tres aspectos siguientes: la posibilidad de la omisión; el papel modificadora del verbo; la complementación del predicado.

Antes de dedicarnos a sus caracteres comunes, se trata de un proceso de separabilidad de los contenidos que contenga el pronombre enfático, sin que pertenezca ni semántica ni sintácticamente al verbo con que se conjuega pronominalmente. Mejor dicho, *irse* significaría 'ir voluntariamente o enseguida, etc.', y *comerse* se traduciría a 'comer todo o enseguida, etc.'. Esta independencia se presenta en la estructura siguiente: 'IRSE'⇒'IR'+ 'voluntariamente', 'enseguida', 'definitivamente', 'de un lugar', etc.; y 'COMERSE'⇒'COMER'+'con mucho apetito', 'todo', 'enseguida', etc..

La omisión del circunstancial no afecta para nada a la estructura oracional, y la oración relacionada sigue manteniéndose gramatical.

También el pronombre enfático se suprime sin perder la gramaticalidad de la oración. Esto puede observarse en el caso siguiente: 1) *Mañana nos vamos a Caracas*. En esta oración originaria podemos eliminar el pronombre enfático *nos* como sigue: 2) *Mañana vamos a Caracas*. Y también el circunstancial *a Caracas*: 3) *Mañana nos vamos*.

En cuanto a la función modificadora del verbo, se comparten el circunstancial y el pronombre enfático. Los contenidos citados arriba del éste puede modificar el verbo como aquél.

Y su modificación significaría la complementación del predicado. Los contenidos independientes pueden complementar con riqueza el predicado, así como lo hace el circunstancial en la oración.